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이주단체
발신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목	귀환이주여성 사례보고회 발표
날짜	2019. 11. 28. (총 2매)

보도자료

귀환 이주여성 사례 보고회 발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귀환이주여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글로벌센터 402호에서 귀환 이주여성 사례보고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귀환 이주여성”을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본국 귀환사례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필리핀, 몽골, 태국의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지에서 귀환 이주여성 당사자를 만나고 이와 관련된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지원하였다.

현지 조사에서 이주여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겪은 폭력피해의 트라우마, 정리되지 않은 혼인관계, 자녀양육과 국적 문제까지 여성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본국에서 사회적 인식과 차별로 귀환 이주여성이 본국으로는 돌아갔지만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귀환 이주여성 보고회에서 필리핀, 몽골, 태국의 현지조사를 통해 총 15개 기관과 22명의 귀환이주여성 사례를 발표하고 이후 귀환 이주여성 사례 지원현황과 이주당사자로서의 이주여성을 지원하며 느낀 소감, 마지막으로 귀환 이주여성의 재통합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만났던 귀환이주여성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후속 지원에 대해 소개하며 앞으로 상담소/쉼터 등 각종 이주여성 단체, 그리고 한국사회

가 귀환이주여성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

2019년 11월 28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